아르투르 슈니쯜러의 희비극 「말」의 해석시론

——「언어회의」적 관점에서——*

허 창 운
(獨文科 敎授)

I. 서 론

슈니쯜러(Arthur Schnitzler)가 언어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회의(Sprachskepsis)는 작품 「Anatol」(아나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 단편 「Flucht in die Finsternis」(암흑속으로의 도주)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전생애를 통해서 역력하게 추적될 수 있다. 특히 「Flucht in die Finsternis」의 마지막 대목에서 의사 Leinbach(라인바하)가 자신의 일기 속에서 던지는 물음은 말에 대한 미심증을 강하게 풍겨준다:

〔...〕 „ob dieses Wort—wie so manche andere—nicht eigentlich eine Ausflucht bedeutet—eine Flucht ins System aus der friedlosen Vielfältigkeit der Einzelfälle —, das ist eine andere Frage. Und ein Fall, wie der meines armen Freundes...“

즉 이 「독백」은 언어의 개념성(Begrifflichkeit)이란 이를테면 표현의 난감한 처지를 모면해주는 일종의 구실(eine Ausflucht)을 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회의, 바꾸어 말해서 어떤 현상을 특정한 개념으로 묶는 일은 개별성을 띤 무수한 경우들로 형성된 어떤 체계속으로의 피신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 더구나 문장을 완결시키지도 않은 채 중단하고 있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가 마치 상황에 대한 적확한 표현 능력이 없는 언어 그 자체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조차 풍겨주기도 한다.

어쨌든 이처럼 언어가 지닌 문제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슈니쯜러의 희비극 「말」(Das Wort)의 복합적인 의미를 분석·해명하려는 작업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우리의 시각을 「말」이라는 단어의 표제가 시사하고 있는 바, 슈니쯜러의 언어관에 촛점을 맞추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상관관계를 투시해보고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규명안된 이 미완성 작품의 실체를 좀더 심층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여간에 확실한 것은 「Das Wort」가 미완성의 단편으로서 작가의 생전에 발표되지 않았던 유작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1966년 Kurt Bergel이 유고를 정리, 편집, 간행한 이 작품의 서문에서 그는 30여년이란 긴 생성기간을 거치면서도 슈니쯜러가 끝내 이를 완성시키지 못한데 대한 중요한 이유를

* 본 논문은 1981년도 아산학술재단 연구비에 의거한 연구임.

두가지로 요약하고 있다.[1] 말하자면 이 작품은 끝내 잘 해결될 수 없었던 근원적 약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슈니쯜러는 그 발간을 꺼리게 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그 중의 한 약점으로서 Bergel은 작품「Das Wort」의 주인공 Treuenhof(트로이엔호프)가 무대상연이란 객관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기는 하나, 작가의 주관적 의도에 꼭 부합되는 탐탁한 인물은 될 수 없었다는 숨은 이유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 밖에 또 다른 한 이유로서 중시되는 점은 슈니쯜러 자신이 생전에 교우관계를 맺고 있었던 동시대의 작가 페터·알텐베르크(Peter Altenberg)[2]의 인간성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반대감정의 양립현상(Ambivalenz)이 상존함으로써 작가의 주관세계는 어떤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이라고 Bergel은 주장한다.

보다 일반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그러한 문필가적 전형이 흔히 지니고 있는 투철한「작가적 본분」(Dichtertum)과 그 아류들이 필경 과시하기 마련인 경박한 탐미주의적「글장이 행위」(Literatentum)[3]간의 간극에서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는 부동성이란 약점이 바로 그런 갈등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Schnitzler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감정의 병존현상이 실제로 Altenberg의 의식속에 객관적으로 상존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도 그 점을 스스로 숙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문학적 재능이 탁월한 문사였던 반면에 또한 안주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보헤미안이었고 동시에 알콜중독자요 신경쇠약자로서의 운명을 면치 못했던 불운의「글장이」였었다. 어린애다운 순수성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그는 또 이상주의자요 개혁주의자였고, 나아가

---

1) Kurt Bergel(Hrgb): Arthur Schnitzler. Das Wort, Frankfurt am Main 1966(Fischer-Verlag), Einleitung S. 24ff. 참조.「Das Wort」의 우리말 역어를「단어」라 하지 않고 포괄적 의미의「말」로 택한 것은 이 작품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제가 통용적 의미의「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언어」란 개념도 이 논문에서는 언어학적 의미의「랑그」(langue)나「빠롤」(parole)보다는「랑가쥬」(langage)에 가깝게 이해하여,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함에 유의 바람.

2) Peter Altenberg(1859. 3. 9~1919. 1. 8): 원래의 이름은 Richard Engländer. 빈출신으로서 잣집에만 상주하는 보헤미안적 문필가의 전형이었다.

빈의 인상주의 산문의 대가로서「Wie ich es sehe」(1896),「Was der Tag mir zuträgt」(1901) 등의 작품이 있으며 슈니쯜러와 비슷한 시기에 문단에 등장했으나 슈니쯜러처럼 성공하진 못했다.

언어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밀도있는 격언적 산문스케치의 대가로서 일상생활의 순간점묘, 현대적 대도시의 극도로 섬세한 말초신경적 분위기묘사, 그리고 문화비평적 경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의 필치는 처음엔 탐미적 경향을 보였으나 나중에는 회의적이고 격식적이며「아이러니」적으로 변했다.

슈니쯜러는 그에게서 때때로 자신의 분신을 목격했기에 그의 삶에 동정을 표하고 있다.「Das Wort」에 등장하는 Treuenhof가 바로 이 Altenberg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대한 확실한 전거를 Bergel은 풍성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3) 이 표현은「문필가 의식」내지「문인정신」,「작가정신」등을 평가절하하는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라서 우리 말의 등가치를「글장이」란 표현에서 찾았다. 물론 이 용어의 사용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문체론적으로 통용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그 개념의 적확도가 유동적임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서는 패배주의(Beatnik)의 초기 유형을 구현한 인물인 동시에 그것의 비엔나적 변종(Wiener Variante)이라고도 볼 수 있는 터이다. Altenberg의 이러한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성격상의 불일치성을 슈니쯜러는 결국 자신의 Treuenhof를 통해서 충분히 소화시켜 형상화시키기가 어려웠던 셈이다.

이를테면 일군의 사람들이 한 작가를 「천재」로서 아무리 존경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들 독자에겐 Treuenhof는 좀처럼 명실상부한 창조적 인물로 부각되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경구를 함부로 내뱉는 신경질적인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작가의 본의도에 부합되는 인물상이라고 보기가 힘들 것이다.[4]

이와같이 Bergel이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수준미달」의 인물 Treuenhof가 과연 본래의 작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 정도로 모순투성이인가 하는 문제점을 추적하면서 이 작품이 차지할 수 있는 문학사적 비중을 저울질하는 연구는 또한 그것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5]

그래서 본 고찰의 핵심은 우선 「언어회의」라는 포괄적 개념과 관련된 시대배경을 개관하고 나서, 언어가 현실세계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글장이」(Literat)가 수행하게 되는 특수한 언어행동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결국 「글장이」란 전형이 누리고 있는 언어적 연관관계(Sprachverhältnis)는 작중인물 Winkler(빈클러)가 대변하고 있는 현실적·회의적 언어관에는 부합되지 않는, 슈니쯜러 문학 특유의 전형적 현상으로서 대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거론될 문제는 「언어회의」라는 현상과 전달매체적 언어기능과의 상관관계가 될 것이다. 작품 「Das Wort」속에 등장하는 「글장이」의 경우엔 전달매체로서의 언어가 지닌 기능이 한계성을 나타냄으로써 파생되는 그들 나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며, 이어서 언어의 무력한 실상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슈니쯜러의 궁극적 주관심사가 되어버린 「내면세계의 파악」(Die Erfassung innerer Wirklichkeit)이라는 다분히 심리학적·문학적 문제성, 곧 혼돈의 의식세계를 문학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자 하는 본격적 작가정신에 귀착하게 되는 일면이기도 하다.

II. 「언어회의」와 시대적 배경

언어가 지닌 문제성을 주제화하고 있는 「Das Wort」의 구상을 슈니쯜러가 처음 시도한

4) 희비극 「말」에 접철된 Schnitzler의 전기적 요소와 Altenberg와 Schnitzler의 교우관계에서 빚어진 여러 사건들의 반영성에 관해서는 Bergel의 상세한 전거가 철저하게 증명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Das Wort」, Vorwort 참조).

5) 본 연구의 Text(텍스트)는 Bergel이 Schnitzler의 1927년도 본(Fassung)을 기초로 간행한 「Das Wort」(Fraukfurt a.M. 1966, S. Fischer Verlag)를 토대로 한다.

시기는 이미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는 임종 5개월 전까지도(1931년 5월 30일) 줄곧 그는 이 작품의 완성을 도모해 보았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미완성이 되고 말았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다.

언어라고 하는 의미전달매체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명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때 그것은 스스로 철학적, 문학적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성찰의 매체로서의 언어가 지니는 효용성에 대한 기반도 송두리채 흔들리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회의」(Sprachskepsis)라는 표제어로 개괄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그 자체 속에 이미 복합적인 문제성을 내포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고 동시에 이 개념은 그것의 본질적 해명을 강구하라는 요청도 함께 수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언어가 지닌 문제성의 체험과 동시에 이 문제성을 규명해 보려는 노력은 금세기 초부터 다각적으로 경주되어 왔거니와, 오늘날의 문학이나 철학의 핵심부분이 바로 언어와 관련되는 차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은 중차대한 실정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여파로 야기된 사회적·경제적·혼돈상과 더불어 와해된 가치체계와 또 이에 편승해서 스스로의 의미를 상실해 간 기존현실에 대한 그 시대 진형적인 사유는 바로 언어의 기능과 그 한계성에 관해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회의적 물음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사고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 스스로의 존속과 연명 그리고 계속적인 증식을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도구적 수단의 특수형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소망은 도무지 충족되려고 하지 않는 실로 헛된 여망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둔한 짓거리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은 바로 무력한 언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기능이 파괴되고 무기력해진 마당에서는 그 소망의 공허함은 자명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H. Vaihinger(바이힝어) 같은 당대의 철학자는 자신의 언어회의관을 그의 주저 „Philosophie des Als Ob"(1911)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

"사유는 어떤 사물을 가상하게 되는 바, 그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그것의 속성으로 부속시킨다. 바로 이 허구의 도움을 빌어 사유는 휘몰아치오는 감정의 바다로 부터 빠져 나오는 것이다 […] 그런데 이 사물의 가상적인 설정도 언어의 도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런지도 모른다. 그 언어의 덕택으로 그 사물에 상응하는 단어가 주어지고 또한 속성의 특별한 명칭도 부여되는 것이다. 바로 그 단어엔 이제 그 특성을 지닌 사물이 존재하겠지 하는 망상이 접지되는 것이다 : 그래서 단어는 그 착각을 고정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S. 305f.)

(Das Denken fingiert ein Ding, dem es seine Empfindungen als Eigenschaften anhängt; mit Hilfe dieser Fiktion arbeitet es sich heraus aus dem Meer der anstürmenden Empfindungen [...]. Und diese Aufstellung des Dinges wäre nie möglich gewesen ohne Mithilfe der Sprache, welche

für das Ding ein Wort hergibt, und welche den Eigenschaften besondere Namen gibt. An das Wort heftet sich nun der Wahn, es gäbe ein Ding, welches Eigenschaften habe: das Wort gestaltet die Fixierung des Irrtums)[6]

이미 Nietzsche도 본질표상(Substanzvorstellung)의 뿌리를 언어에서 발견하였고, "언어의 유혹"속에 "이성의 화석화된 기본착오들이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짓거리지,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만물 위에 춤추며 군림하고 있는 꼴이야 말로" 하고 그는 Zarathustra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7]

결국 20세기 초에 등장한 언어에 관한 문제는 바로 지나간 세기의 실증주의(Positivismus)가 만들어낸 엄격한 신화와 언어에 대한 착실한 비판작업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모든 언어속에는 공개적이건 비공개적이건 특정한 목적이 작용하고 있고 모든 현실은 이미 그러한 목적에 메인 언어에 의해서 「주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모양이 일그러져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의 직접적인 표현은 불가능해지며 언어의 「자율성」(Autonomie)에 의존하고 있던 시인들의 전통적인 행동상은 심각하게 동요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이제 언어는 실제적인 실존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고, 따라서 「본격문학」은 그 기초를 잃은 것처럼 보였었다.

이러한 문제성의 문학적 형상화가 바로 Hugo von Hofmannsthal(호프만스타알)의 저 유명한 「Brief des Lord Chandos」(첸도스 경의 편지)(1902)에서 구현되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Chandos의 체험은 사실 모든 현대적 작가가 삶에서 봉착하게 되는 공통적 현상이다.[8] 「우리들이 자연히 무엇인가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추상적인 단어들이 내 입에서는 흐물흐물한 버섯처럼 허물어져 버린다」는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해서 전통적인 전제론(Topik) 권에만 있을 때는 개념들의 신기한 연관관계의 유희에 만족할 수 있으나 그것들이 현실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찾으려 하면 그땐 마치 순전히 눈없는 석상들이 즐비한 정원에 감금되어 있는 신세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부서져 흩어지고, 어느것 하나 어떤 한 개념으로 뭉뚱그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Chandos의 체험으로부터 Hofmannsthal이 내린 결단은 서정적 장르에서는 함구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정적으로 직접 감정을 표현하는 영역을 포기해 버리고 이제부

6) Hans Vaihinger(1852~1933)는 Kant의 연구가로 유명한 Halle의 교수로서 그의 주저서 „Philosophie des Als Ob"에서 실용주의의 독특한 형식을 개발한 것으로도 유명한 철학자였다. (Eibl, Karl: Deutsche Literatursprache der Moderne, S.516에서 재인용)

7) K. Bergel, Das Wort, Einleitung. S.22에서 재인용 : „Es ist eine schöne Narretei, das Sprechen: damit tanzt der Mensch über alle Dinge" (Friedrich Nietzsche, Also sprach Zarathustra, Ⅲ, 》Der Genesende《)

8) H.-J. Mähl, Die Mystik der Worte. Zum Sprachproblem in der modernen deutschen Dichtung. In: WW 13 (1963), S.289-303 참조.

터는 말의 기능적 상관관계만이 살아있는 희곡과 산문 영역에서만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Chandos의 경우는 전반적인 침묵과 절대적 함구로 극단화되고 있다. Chandos가 택한 길은 이젠 더 이상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마음」(Herz)으로 생각하는 사고방법 속으로 침거하는 일이며, 단어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더 유연하며 더 뜨거운 「물질」로 된, 침묵하는 사물들의 「언어」속으로 안주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는 말하자면 「언어없는 신비의 경지」 속으로의 복귀라고나 할까.

이처럼 언어에 대한 회의는 금세기로 들어서면서 모든 작가들의 공통관심사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 현상의 극복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Schnitzler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물론 그 심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자세만은 역시 같은 기로상의 모색임엔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에 대한 회의성은 Nietzsche에서 출발하여 Schnitzler와 Hofmannsthal의 세대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고 급기야는 바로 문학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심리학, 철학, 윤리학의 측면에서도 그것은 본질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언어에 대한 회의가 작품내에서 간헐적으로 표명되기 보다는 처음부터 뚜렷이 작품의 표제로서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Das Wort」는 특이하다.

Schnitzler는 항시 구체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지니는 언어의 회의성(Fragwürdigkeit)을 문제삼곤 했던 반면에 Hofmannsthal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고[9], 그러다가 「Chandos-Brief」에서 비로소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되고, 그를 분기점으로 예술활동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여러 각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III. 「언어회의」와 문인의 전형 : 「글장이」

1. Treuenhof의 실상과 허상

희비극 「Das Wort」에서는 언어가 지닌 문제성(Sprachproblematik)이 일차적으로 「글장이」라는 전형(Typ des Literaten)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글장이」란 바로 직업적인 이유에서만으로도 언어와는 각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터이고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근거를 찾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바로 이러한 연관관계가 이미 언어의 매체적 기능이 노정할 수 있는 문제점의 온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철두철미 독창성을 추구하는 작가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단어(das Wort)를 사용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형상화시키는 기본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9) 이점을 G. Wunberg는 Der frühe Hofmannsthal, Stuttgart 1965, 7 Kap.: Die Sprachproblematik in den frühen Gedichten에서 강조하고 있다.

점이다. 이는 문학적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그럴수 있기 때문에 여류작가 Flatterer 부인도 역시 가면무도회를 위해서 자신을 수녀(Nonne)로 분장시킬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방종한 여자(Baccantin)로서의 등장이 가능한 것이다(S. 38, 40 참조). Treuenhof의 경우엔 스스로 객관화된 3인칭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 hier gehöre ich her, hier haust Anatasius Treuenhof unter Dirnen, Zuhältern und Literaten (S. 53)

익살맞은 은유를 동원하여 Treuenhof는 간결하게 글장이의 삶을 구상적 장면에 담기도 한다:

„Intellektuelle sind es, Weltentlüftler, Literaten mit einem Wort. Sie werden an ihre Sargdeckel klopfen und den Totengräber um Papier und Bleistift bitten, um die Sensationen während des Begräbnisses aufzuzeichnen. Begrabene sind es, Tote, und wenn sie über die Erde wandeln, ist ewige Mitternacht." (S. 48)

어둠속에서 살아간다는 Treuenhof의 표현대로라면 글장이의 삶에는 현실과의 참다운 연관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의 삶은 오직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동에서만 생명을 얻는다. 그에 의하면 글장이란 삶에 있어서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요, 죽음에 임해서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관속에서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시간의 영역밖에 서 있고 영원한 심야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Treuenhof는 "나는 20년 전부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야!"(er sei „seit zwanzig Jahren ein Sterbender!": S. 55)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을 듣고 「궁정참사」 Winkler(빈클러)는 그에게 이렇게 응수한다:

"그렇지 자네는 인생을 항시 너무 안이하게 살아 왔었지 〔…〕 임종의 마당에서는 책임관계는 말소되는 법이니까"

(„Ja, du hast dir das Leben immer sehr bequem gemacht 〔...〕 auf dem Totenbett hört jede Verantwortlichkeit auf": S. 55)

인어가 그 본래의 기능을 저버림으로 해서 연유되는 참되지 못한 삶을 글장이들이 영위한다고 볼 때 그들은 역시 인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경시당하게 된다.

Rapp(랍프)에 의하면 Gleissner(글라이쓰너)는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부류"(einer, „den niemand ernst nimmt")에 속할 따름이라고 한다. Treuenhof는 Zack(짝크) 앞에서 그의 장인 장모에 관한 극히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입에 담는 인물로 행세한다(S. 43 참조). 분명 그는 자기 스스로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기미는 보여주지 않는다:

„An mich glauben, das nenn ich mich betrügen." (S. 54)

이처럼 글장이의 실상이란 언어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휘들을 마구 남용하면서 생을 영위하는 심히 자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특히 정상적으로 삶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예술이 과소평가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실상실증을 앓고 있는 언어의 일반적 비도덕성을 고발하고 있는 「Das Wort」는 표제부터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성을 시위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작품의 모토로 내건 솔로몬의 경구 「Tod und Leben steht in der Zunge Gewalt」(삶과 죽음은 폭력이란 혀에 달려 있다 : 솔로몬 잠언 18장 21절) 역시 말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Treuenhof의 실상도 이런 관점에서 투시해 본다면 이 인물 역시 언어행위의 반윤리성에 대한 표본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0]

그렇게도 자주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술회해 온 Treuenhof이지만 실제에 있어선 이점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얼핏 보기에 자아인식에 투철한 성싶으나 그것은 짐짓 그렇게 해보이려는 외견상의 몸짓(Pose)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은 특히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Treuenhof를 스승으로 받들고 있는 Gleissner에 대한 Rapp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바로 Treuenhof에게도 적용된다:

„Auch das Bewußtsein seiner Unzulänglichkeit schlägt er um die Schultern wie einen Purpurmantel aus der Maskenverleihanstalt." (S. 88)

Treuenhof는 전통적인 언어관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려 해보지만 그 언어가 지닌 문제성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해방적」 각성에 이르지 못한다.

2. 「글장이」의 속성과 언어의 윤리성

아울러 이러한 글장이근성(Literatentum)의 허구성 내지 가식성(Scheinhaftigkeit)을 밀도 짙게 통찰하는 사람은 「비평가」 Rapp이다. 그는 특히 제 1 막에서 환상을 깨뜨리는 냉혹한 진술을 통해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지문은 두번이나 „kühl"(S. 38), „sachlich"(S. 43), trocken(S. 45)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글장이들이란 Rapp의 입장에서 볼 때 "지상에는 충분한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정밀하지 못한 신경이라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동업자들"(S. 38 참조)로 간주된다. 게다가 자기 자신의 직업에 관한 그의 풍자적 언

10) Schnitzler의 다른 희곡에서도 역시 「글장이」란 인물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비판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자신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차취한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삶을 문학으로 양식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글장이」 전형들은 「Reigen」에서의 Biebitz, 「Literatur」에 나오는 Margarete와 Gilbert 그리고 「Der Weg ins Freie」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급도 심히 냉소적이다:

„Ich bin beschäftigt, die Nichtigkeit von Nichtigkeiten nachzuweisen." (S. 55/56)

자멸에 찬 어투로(지문 „mit Selbstironie" S. 88 참조) 그는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헛된 노력, 즉 허세와 우둔한 바보짓으로 가득 찬 허망한 세계에서 등을 돌려 자신의 필봉을 보다 보람찬 사업에 봉사하려는 각오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S. 88/89 참조). 그러나 그는 결국 모든 걸 체념하고 이렇게 실토하고 만다:

„In Wirklichkeit interessieren mich die alberen Stücke von Gleissner mehr. Daran gehe ich zugrunde." (S. 115/116)

그는 자신에게 인간애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 „Ich habe die Liebe nicht [...], die Menschenliebe habe ich nicht." (S. 145 Entwurf). 바로 이러한 글장이 특유의 자기도취적 자만과 허탈감 속에서 우리는 일말의 서글픈 비극성을 엿보게 되는지도 모른다. 근본태도가 장난기를 띠우고 지속력이 없는 무책임한 단면을 우리들은 그들이 토로하는 언사속에서 쉽게 간취하게 된다. Gleissner(위선을 부리는 자)나 Flatterer(변덕스러운 자) 같은 그로테스크한 그들의 이름만 보아도 벌써 그들의 본성이 알맹이가 없는 가식성으로 채워져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Einleitung, S. 21 참조). 그들이 입에 담는 단어들은 현실과의 상관관계에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를 곧이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Ach, Sie nehmen alles so wörtlich" (S. 38)
(:Flatterer 부인이 자신을 「공매」에 부쳤다는 진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해명)
„Du nimmst alles so wörtlich, so fruchtbar wörtlich" (S. 60)
(:Winkler의 태도에 대한 Treuenhof의 빈정댐)
„Es ist ja nicht so wörtlich gemeint." (S. 121)
(:Lisa의 무뢰한 듯한 제안에 대한 Rapp의 논평)

「말 그대로는 믿기 어렵다」는 자세는 글장이들의 「은어」(Jargon)에서 자주 표출되는 바이는 언어적 표현들이 다분히 불명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반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상황들을 크게 두가지로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표면적 모순현상(Widersprüche)

이를테면 Treuenhof가 자기 방을 묘사하면서 순간적이나마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현상을 보인다. 자신의 안식처이어야 할 곳이 감방으로 둔갑하고 있기 때문이다:

„Wohnung? [..] Ein Loch habe ich, in dem steht ein Bett, ein Sessel und ein Tisch, Aussicht auf einen Lichthof. Wohnung! Ha!—Zelle!—" (S. 42)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모순성은 그의 의견이나 판단의 표명시에도 자주 관찰된다. 「말

이란 아무것도 아니야」(„Worte sind nichts“: S. 125)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으로는 :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파멸에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또 새로 탄생시켰는지 계산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S. 125)
(Da hätte man vielleicht manchen auf dem Gewissen. Aber niemand rechnet nach, wie viele man durch Worte gerettet hat — wie viele durch Worte neu geboren wurde.)

라고 말의 공과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견해를 토로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Treuenhof는 말의 영향력을 한편에서는 극구 부인하다가는 단숨에 또 다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② 표현의 과장과 첨예화 현상

작중에 등장하는 골장이들은 대체로 현실폭로적이며 과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태세이지만 때때로 몽환적이며 비현실적인 시적 열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컨대 Treuenhof는 Lisa에 관한 찬사를 늘어놓음에 있어서 진지성을 의심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과장법과 최상급의 수식어를 나열하여 심리적 감동을 인위적으로 극대화 시키려는 수법을 구사한다:

„Sie werden das entzückendste, reinste, edelste Wesen sehen, das es heute in dieser Stadt, ja wahrscheinlich in der ganzen Welt gibt.“ (S. 44)

Flatterer 부인이 이러한 그의 열광을 미심쩍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정도이다:

„Was mag das für eine Frau sein, die es versteht, Sie zu solcher Schwärmerei hinzureißen?“ (S. 44)

Gleissner가 말하는 Lisa의 성격묘사도 역시 유별난 고풍적 비유법을 구사함으로써 상기한 경향을 보인다:

„Sie hat Augen tief und unergründlich wie ein Bergsee, eine Stimme dunkel wie der Klang einer Viola d'amour;“ (S. 45)

이와 같은 과장적 언어표현은 자칫하면 허세를 노출시키게 되고 그것이 첨예화되면 터무니 없는 역설로 탈바꿈하게 됨을 우리들은 자주 목격하는 터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언어의 미의 「공허화」, 「마모화」 현상도 역시 언어의 「회의성」이란 개념속에 포괄시킬 수 있으니, 언어의 표현의미 배후에는 이처럼 과도한 남용에서 생기는 문제성(Fragwürdigkeit)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언어회의와 결부되는 보다 깊은 차원의 윤리문제가 「Das Wort」의 핵심을 차지하는 Treuenhof와 Willi의 대화장면에서 노정되는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 대화가 심리적 형태적 관점에서 하등 모순이 없으며 완벽한 논리성을 보여주는 점이다. 우리는 단번에 Treuenhof의 판단, 추리, 연상이 틀리지 않음을 안다. 그는 아주 정확하게 Lisa의 적정적이며 비성찰적 성품을 꼬집는다:

„Hatte sie jemals das geringste Bedürfnis, in den Tod zu gehen? Mit wem immer? Wird sie es je haben? Nie." (S. 112)

남녀간의 상이한 성품을 꼬집는 Treuenhof의 풍자는 Schnitzler의 문화비평적 확신을 부정적 면에서 대변하고 있는 셈 일기도 하다:

„Frauen lügen nie, nur Männer, denn sie wissen, was Wahrheit ist [...]" (S. 112)

Treuenhof의 표현은 절대적이고 흑백이 분명하며 포괄적이다:

„In den Familien liebt man mich überhaupt nicht" (S. 51)
„Schreiben ist überhaupt eine Qual. Ich schreib höchstens im Kaffeehaus auf Marmorplatten [...]" (S. 69)
„Überhaupt, es ist unmoralisch [...]" (S. 111)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판단이 주는 극명성(Prägnanz)은 역시 의심스러운 여운을 남긴다. 그의 견해는 간결하면서도 독단적이다(S. 111/112 참조). 줄기차게 그는 자신의 도덕적 결백을 고집하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전가하기에 바쁘다:

„Die Schuld liegt bei dir [...]. Der Lügner bist du." (S. 111)
„Du bist zur Halbheit geboren." (S. 114)

이러한 표현에서 추론되는 점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노출되는 언어의미의 임의적 조작성이다. 즉 상황의 오판에서 생길 수 있는 편협성인 것이다. Treuenhof는 주위의 어둠 때문에 Willi의 표정에서 절망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게다가 상황분별력이 결여된 심성이 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데 가담하고 있다. Willi가 다 부셔버린 초상화를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그는 전후관계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하기에 이른다. 이 초상화의 파괴가 지닌 상징성은 그의 이해영역과는 무관하다. 이처럼 결정적 상황에 처하여 절망에 찬 젊은이를 대면하자 그가 그렸던 상상은 허물어지게 되고 추측의 가능성은 불거품이 되는 것이다:

„Das hätte noch gefehlt- Mörder—wenn du sie mit dir in den Tod genommen hättest. Ein Glück, das es dir nicht gelungen ist, sie zu überreden. Wenn du dich schuldig fühltest, hätte ja dein Selbstmord genügt." (S. 112)

Treuenhof의 유희적 가상적 표현은 얻핏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첫 문장에서 명시된 비현실화법을 통해서 느닷없이 내려진 "살인자"란 선고도 엉뚱하게 터무니없는 표현임을 짐작케 해준다. 왜냐하면 Willi가 Lisa를 설득하여 동반자살에 이르는 길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Treuenhof는 즉각 자신의 일관성 있는 상상에 거듭 복귀하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과거시제의 비현실화법으로 표현된 점이다. Treuenhof는 표현에 어떤 현재적 실질성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여파로 생긴 파국적 결

과인 Willi의 자살사건에 이르러서야 그것의 치명적인 비도덕성이 나타나게 된다.

말의 윤리적 책임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그것에 결여되어 있는 현실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임의적인 자의성의 부각에는 수사적 표현기법이 걸맞는다.

글장이 부류들은 난데없는 기발한 표현을 위해서 기꺼이 진실성을 포기할 태세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때때로 지루하고 태만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공격적이며 저돌적인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격언(Aphorismus), 경구(Sentenzen), 역설(Paradoxon) 따위의 기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Einleitung, S. 22 참조). 이를테면 대구(Antithese)의 형태를 띠고 자주 나타나는 Treuenhof의 과감하게 단순화시킨 표현들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Frauen lügen nie, nur Männer" (S. 112)

그가 자신의 삶을 Willi의 그것과 대비시키고 있는 대목도 역시 시사적이다:

„Ich bin, wie ich bin, du bist, wie du bist" (S. 54)

이 표현은 순수한 수사적 대조법의 공전일 뿐이다. 그밖에 대조적 사항들을 열거하는 댓귀법(Parallelismus)을 구사하고 있기도 하다:

„Ich schleppe mich weiter, du schwebst. Ich sinke in die Nacht, du steigst zum Licht empor. Ich war immer alt, du wirst immer jung sein [...]" (S. 54)

이와 더불어 Treuenhof이 즐겨 구사하는 어법으로는 수사적 물음 즉 설의법이 있다(S. 113 참조).

격언과 유사한 역설 역시 자주 관찰된다:

„Frauen sind Heilige und Dirnen zugleich." (S. 111)

Schnitzler 자신은 대체로 격언을 선호했지만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삶의 진실성을 가능한한 간결하고 명료한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음인지 그런 영역에서 자기 나름의 개성을 개발하기도 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주관적 발언 속에는 대체로 격언의 원초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그는 또 이런 류의 표현이 안고 있는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Brief an Brandes 1924년 12월 14일자 참조):

„Schüttle einen Aphorismus, so fällt eine Lüge heraus, und eine Banalität bleibt übrig." (Buch der Sprüche und Bedenken, Brandes Brief에서 인용, Anm. S. 194)

„Ein Paradoxon ist eine Lüge, die durch einen Tropfen Wahrheit vergiftet ist." (Nachgelassenes Aphorismus, Bergel, Vorw. S. 22)

여기서 Schnitzler의 파라독스는 극에 달한다. 「Lüge wird durch Wahrheit vergiftet!」란 극단적으로 첨예화된 이러한 표현으로 슈니쯜러는 첨예화기법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일반 언어관에 일관되어 있는 비판정신의 귀결일 따름이다.

사상적 관점에서 볼 때 슈니쯜러의 격언문학은 Joseph Hutschneider의 말대로 체계적 철학적 사유의 추상성을 떨치고 윤리적 현실성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현실을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하는 편에 경도되어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11]

이와 같이 심각하게 회의하는 사유의 진지성과 말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은 물론 극중에 등장하는 글장이들에게는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 그대신 그들은 격언적 표현기법을 구사해서 얄팍한 재치들을 과시하는 계기는 놓치지 않고 있는 셈이다. (S. 38 참조)

결국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때 파라독스란 사물의 전체적 통찰에서 생명을 얻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공허한 효과만을 노리는 저의에서 생겨난 것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유희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S. 48 참조)

III. 언어행위의 책임과 한계

1. Winkler의 언어관

글장이들이 지닌 유희적 비현실적 언어관과 침착한 「생활인」 Winkler의 현실적이고도 회의적 언어관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상위점이 있으며 따라서 Winkler가 Treuenhof과는 대조적 입장에 서게 됨은 이상할 것이 없다(S. 77 참조). 말하자면 Schnitzler 자신을 대변해주는 Winkler는 Treuenhof의 독선적이고도 무책임한 글장이적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셈이다. 현실주의자로서 Winkler는 인간이 의사표현의 매체인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처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표현매체가 지닌 불완전성과 한계성을 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Schnitzler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12], 그러한 사정의 명백한 인식에서 생겨나는 언어의 윤리성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사항을 정확하게 발설할 수 없는 언어의 특수성을 존중함으로써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그의 진지한 언어관은 Treuenhof를 고발하는 제 5 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더욱 명백해 진다. (S. 122ff.)

결국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는 언어의 윤리성을 Schnitzler는 이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11) Joseph Hutschneider, Arthur Schnitzler als Aphoristiker. I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rthur Schnitzler Research-Association, Vol. 4 (1965), S. 13 u. 17 참조.

12) 1915. 12. 9일자 Brandes에게 보낸 편지를 볼 것 같으면 Schnitzler는 「Professor Bernhardi」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Hofrat Winkler를 경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식하는 Willi의 자살사건을 통해서 시위하고 있는 셈이다.

2. 「말」의 횡포와 대화기능

언어의 윤리성은 Schnitzler의 다른 여러 작품에서도 거듭해서 강조된 주제이기도 하다: 「Anatol」에서 이미 Schnitzler는 말의 남용에서 생기는 비도덕적 체험과 관련해서 그것의 특수한 분위기에 관한 대화를 이렇게 잇고 있다:

Anatol: Ich kann es dir gar nicht erzählen.
Max: Warum?
Anatol: Weil die Geschichte so gewöhnlich ist als nur möglich... Es ist...nichts. Du kannst das Schöne gar nicht herausempfinden. Das Geheimnis der ganzen Sache ist, daß ich's erlebt habe."(Episode, Dr. I, S. 55)

이와는 전혀 다른 어조로 Filippo는 언어적 표현의 한계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다:

„Nur mit den anderen Worten der Gewohnheit nennt unser Mund das Ewig-Unbegriffne." (Der Schleier der Beatrice, Dr. I, S. 635)
„War schon 'Liebe' für das, was uns aneinander hielt, ein allzu armseliges Wort, so wollte *mir gar das Wort 'Schmerz' [...] lächerlich nichtig, wie aus einer anderen, leerhallenden,* fremden Sprache geholt erscheinen" (Der letzte Brief eines Literaten, Erz. II, S. 222)

「Anatol」의 인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언어가 지닌 의미의 부정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언어에 대한 불신을 Klara는 인식의 순간에 표명하지만 이 순간의 체험이 지나자 그녀는 자기 딸에게조차 한마디 작별인사도 남겨놓지 않은 채 말없이 죽음으로 향할 결심을 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말이란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Worte lügen": Dr. II, S. 491). 표현할 수 없는 경지의 마지막 귀결점은 결국 말문을 닫고 침묵하는 일이다.

발언의 불확실성이 개념의 모호성에 소급됨은 Hofmannsthal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념이란 기능상 현실적인 것을 정돈해서 파악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한낱 형식적인 것으로 굳어질 때 그 기능은 마비될 수가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은 역사적, 사회적, 관습적 내용의 짐을 지고 현실적인 혼돈앞에 손을 들고 마는 것이다:

„Wie man doch immer wieder, durch Worte verführt. Straßen, Schicksale, Menschen in träger Gewohnheit benennt und beurteilt." (Traumnovelle, Erz. II, S. 492)

현실을 오도하고 삶의 풍성함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개념의 이러한 폭거는 「Die Hirtenflöte」에서도 묘파되고 있다:

„[...] dein Geist war erwürgt im kalten Krallengriff von Worten, darum vermeintest du des

Lebens ungeheure Fülle, das Hin- und Widerspiel von Millionen Kräften in hohlen Spiegel einer Formel einzufangen." (Erz. Ⅱ, S. 40)

이처럼 언어가 지닌 문제성은 상기한 원초적 차원에서 인식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언어는 과연 현실을 중개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걸까? Schnitzler는 참된 의미에서 진리가 과연 존재할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적 기교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Ob es Wahrheiten im höchsten Sinne gibt, ist fraglich" (Die Neue Rundschau 1962, S. 359)

언어가 수행하는 인식능력이 의심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견책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Treuenhof의 견해는 단정적으로 비관적인 반면에(„Worte sind nichts") Winkler는 그래도 실질적이고(S. 60 참조) 타협적이다(„Worte sind alles. Wir haben ja nichts anderes": S. 125).

그러나 유작에서 발견되는 Schnitzler 자신의 언어관은 상기한 양극단론에 비해서는 절충적이다:

„[..] Worte sind gewiß nicht alles, es gibt immer noch etwas zwischen Worten, hinter den Worten, aber all dies Unaussprechliche bekommt ja erst einen Sinn dadurch, daß die Worte da sind..." (Die Neue Rundschau, 1962, S. 351)

Winkler의 실용적 언어행동에서 우선적으로 비중이 놓여있는 쪽은 인간 상호간에 정보의 전달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언어의 전통적 기능 편이다. 이처럼 사회적 차원에서 언어가 지니는 의의와 그 존재의 필요불가결성은 비단 Schnitzler만의 고민거리는 아니었었다.

3. 언어기능의 사회성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Hofmannsthal에게 급격한 언어위기가 발생한 전환점도 따지고 보면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경우 마지막 귀착점은 Lord Chandos처럼 스스로 말문을 닫고 침묵하는 것(Verstummen)이였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인으로서 그는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Als Dichter konnte Hofmannsthal seiner ganzen Art und seiner Grundkonzeption und Grundüberzeugung gemäß nichts anderes tun, als die Sprache als Medium, als Realisierung, als Realität der Verknüpfung, der Gewinnung des Sozialen gelten zu lassen und zu gestalten."[13]

이처럼 통신의 매체로서 언어가 지닌 사회적 기능은 묵살될 수가 없는 일이며, 아무리 언어가 무기력하다 하더라도 이 기능의 회복만은 포기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13) Richard Brinkmann, Hofmannsthal und die Sprache. In: Dvjs 35 (1961), S. 81.

언어가 지닌 사회적 기능은 Hofmannsthal의 희극 특히 「Der Schwierige」의 주제가 되고 거기서 그는 대화가 갖는 문제점 즉 언어의 결속기능에 관한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Altenwyl 노인은 여기서 대화기능의 쇠퇴현상과 의미전달의 붕괴현상을 탄식한다:

„In meinen Augen ist die Konversation das, was jetzt kein Mensch mehr kennt: nicht selbst perorieren wie ein Wasserfall, sondern dem andern das Stichwort bringen... — heutezutag hat aber keiner, Pardon für die Grobheit, den Verstand zum Konversationsmachen und keiner den Verstand, seinen Mund zu halten — ..." (Lustsp. Ⅱ, S. 217)

Helene는 더욱 깊은 통찰력으로 이 주장에 찬동한다:

„Wenn uns vor etwas auf der Welt grausen muß, so davor: daß es etwas gibt wie Konversation: Worte, die alles Wirkliche verflachen und im Geschwätz beruhigen." (Lustrp. Ⅱ, S. 216)

이해불능의 대화에 대한 의혹은 Schnitzler의 경우에도 표면화 되었으니, 그러한 경우들을 크게 두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대별시킬 수 있다:

① 대화의 천박화 현상

대화와 관계되는 동사 「erzählen」(S. 43, 47, 51), 「sprechen」(S. 51, 56, 142), 「reden」(S. 58, 60, 125, 147: Hin- und Herreden, S. 109) 등은 그 기능상 불투명하고 모호한 폄어적 성격을 띠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창녀 Tini의 거리낌없는 언변에서와 같이 때때로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표출되기도 한다:

„Was du manchmal zusammenredest...!" (S. 32)
„Aff! Alle reden daher wie der Treuenhof" (S. 34)

조심성없이 무작정 마구 지껄여대는 형태로(Daherreden) 정체를 드러내는 어법은 무엇보다도 상투적 빈말(Phrase)의 성격을 가진다. Gleissner가 일종의 독본 스타일로 공허한 어구들을 늘어놓으면서 Albine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S. 46 참조) 끔찍스럽기조차 하다. 제 5 막에서 Schnitzler가 Treuenhof-자선협회 창립모임에 정부의 고급관리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관청어의 공허성을 풍자하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말의 남용이나 오용에서 오는 대화기능의 쇠퇴 내지 마비현상은 Schnitzler의 언어관을 시위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② 대화의 단절성

Altenwyl은 지난 날의 대화에는 항시 대화참여자 상호간에 화제를 이어가게 해주는 윤활유같은 섬세한 기교가 있었다고 과거를 예찬한다. 대화참여자 상호간의 참다운 이심전심은 「Das Wort」 내의 대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각자는 기발한 착상과 기지가 번득이는 언변을 통해 상대방을 압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누구나 상대방의 말을 한쪽 귀로 듣

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건성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핵심적인 문제에 이르면 서로 대결을 피하거나 (예컨대 Gleissner가 Rapp의 비판적 언급을 못들은 체해버리는 장면 : S. 47 참조)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꾼다(S. 50의 Lisa). 왜냐하면 개인적 입장들이 너무나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는 이상하게도 단절적이며 비약적으로 끝난다. 한 초안에서의 Flatterer 부인은 그와 같은 단절적인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Es ist sonderbar, man führt hier ein Gespräch nie zu Ende" (S. 133)

상대방들과 벽을 쌓고 있는 것 같고 의사소통의 단절현상을 나타내는 듯한 이러한 표현들은 은밀한 개인적 대화에서도 관찰된다. 예컨대 Mimi와 Gleissner가 무도회에서 나누는 대화에는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밀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말을 마구 지껄이며 행하는 무책임한 장난은 Gleissner의 경우 인간을 희롱하고 실험하는 유희로 화하고 있다. 그는 호언한다:

„Leben, darauf kommt es an. Sein eigenes Leben gestalten, mit Menschen spielen [...]. Mit Seelen experimentieren..." (S. 88)

하지만 Gleissner의 이러한 인형극 연출가적 시도는 좀처럼 성공되지가 않는다. 더구나 Lisa가 단지 Zack의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현혹시켜서 Willi가 Lisa와 관계를 맺도록 해주려는 그의 계획을 Rapp는 통렬하게 꼬집기까지 한다:

„Er hat Schicksal spielen wollen. Aber auch darin bleibt er Dilettant wie in allen" (S. 59)

바로 이 힐난에 Gleissner가 생각보다 심한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작품이 보여주는 심층적 아이러니에 그 원인이 있다. 게다가 Albine를 창녀에서 「성녀」로 격상시켜 주려고 애쓰는 그는 또한 결정적 의미의 연애편지가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Treuenhof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급기야는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Treuenhof의 힘이 암암리에 작용하는 영향권은 막강하여 Mimi와 Ferdinand의 약혼의 성취를 돕고, 끝내 부정적 측면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Willi의 자살이란 파국을 초래케 함으로써 결정에 달하지만 그 과정은 비약적이다. Willi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언에서 이 점은 명백해진다:

„Ich danke Euch allen und vor allem Anatasius Treuenhof. Er hat mir den rechten Weg gewiesen." (S. 125)

「인도」(führen)란 은유는 Schnitzler가 자주 사용한 「도정」(Weg)이란 은유와 교차하면서 다시 한번 초안에 등장하고 있다. 거기서 Lisa는 이렇게 고백한다:

"Ich erinnere mich noch so gut, wie Sie mich damals in Reicheau über eine Brücke ohne Gelände an der Hand geführt haben" (S. 135)

인간상호간의 관계에서 말이 갖는 원초적 기능은 단지 서로를 결속시켜주는 일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 바, 이점이 여기서는 하나의 장면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삶에 있어서 말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 Treuenhof 자신은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존경받는 인물로서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Willi의 작별편지에 관해서 추궁하는 Winkler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이러하다:

Winkler: Welchen Weg?
Treuenhof: Überhaupt keinen. Ich habe überhaupt mehr von mir gesprochen als von ihm. (S. 125)

이러한 태도는 그가 누구에게 충고할 때면 언제나 취하는 전형적인 입장이다. 그는 충고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자신의 역할보다는 항시 자기자신을 더 많이 생각한다. 이런 이기적 면모는 Willi와의 대담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자기 본위적 태도는 Winkler와의 대화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Winkler: Er war verzweifelt, sagst du?
Treuenhof: Das ist doch kein Wunder. Ich war es ja auch (S. 123)

그의 변명은 아집에 충만해 있다:

„Ich bin nicht der Mensch, der in einer solchen Schicksalsstunde wohlfeile Phrasen von sich geben kann [...]. Ich kann solche Sachen nicht leicht nehmen. Ich sehe tiefer. Das ist wahrscheinlich mein Unglück [...]" (S. 124)

Treuenhof는 그러니까 자신의 충고가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는 개의치 않고 진적으로 발언하는 자의 자기 본위적 위치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관점은 유희적 추상적 상상과 보편적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인간적 구체적 현실과는 무관한 입장에 처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서술된 바이다. 이러한 측면은 이제 그의 언어적 비사회성에 의해서 거듭 확인될 수가 있다.

언어가 현실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비중을 상실한다는 의미와 상응하는 것이며 결국 총체적 환상으로 치닫는다는 뜻이다. Treuenhof의 자신감과 자기 나름의 언어적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Winkler와의 논쟁에서이다. 그러나 Willi의 자살소식이 있자 그의 자만감은 즉각 또 확고해진다. 그 불행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기는커녕 자신이 취한 자기 중심적 세계로의 도약이 정당함을 그는 스스로 과시하려는 태도까지 보인다:

„Er war doch der einzige vollkommen reine Mensch, der mir jemals begegnet ist [...]. Der

hat sterben müssen, damit er mich nicht enttäuscht" (S. 126)

„Vielleicht hat mich das Geschick ausersehen, sein Bild rein zu erhalten, für die, die ihn geliebt haben" (S. 127)

Willi의 인간적 불행과 Treuenhof의 어처구니 없는 자기 신뢰의 환상적 착각은——이 이면에는 연극의 주인공이 이상을 위해 파멸하는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구가한다는 이상주의적 비극에 대한 파로디가 숨어 있는데——말의 윤리가 야기시킨 결과로서 여기서는 희비극적 효과의 창출에 동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말이 도덕적으로 사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은 역시 Winkler이다.

„Aber hast du dir auch überlegt, wer dir zuhört? Hast du daran gedacht, daß ein verzweifelter junger Mensch vor dir steht, der vielleicht nicht alles so harmlos auffaßt als es gemeint war?" (S. 124)

그는 언어를 결코 인간적인 것과 분리시키지 않는다. 언어란 그에게는 인간적인 것의 일종일 따름이다. 언어가 지닌 불충분성(Unzulänglichkeit)이 바로 말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Treuenhof는 바로 이 책임의 윤리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Willst du mich vielleicht verantwortlich machen? Er hat mich doch gekannt. Warum hat er mich denn ernst genommen? Er hat doch gewußt, daß ich allerei rede." (S. 147)

따라서 글장이들이 지녀야할 말에 대한 책임감이란 언어의 개념성이 약화되면 될 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Schnitzler의 주장이다(Bergel, Vorw. S. 23 참조):

„Der Gegensatz lautet nicht Dichter-Literat, sondern einfach Mensch-Literat" (Vorw. S. 24)

언어행위에 대한 책임감은 단어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임감은 무한정할 수는 없으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슈니쯜러는 말이 행위가 미리 예시해주는 음영일 경우에만 („Wenn es der Schatten ist, den die Tat vorauswirft": Timon der Redner, Lustsp. Ⅳ, S. 433) 그 말에 책임을 진다는 Hofmannsthal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말은 행동에 의해 압도당할 수가 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칭할 수 있는 언어의 무력함(Sprachohnmacht)[14]은 「Der Gang zum

14) „Der Ruf des Lebens"에 관해서 1905. 10. 1일자 Otto Brahm에게 보낸 편지 참조:
„[...] wollte das Stück 'Widerhall' nennen, womit auf die ungeheuren Lebenstäuschungen hingedeutet werden sollte, die dadurch über uns hereinbrechen, daß für tansenderlei Taten und Gefühle immer nur ein und das selbe wort Geltung hat."

Weiher」에서도 역시 형상화되고 있으니[15], 아무리 현명한 말이라 하더라도 행위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고 보는 것이다:

„Ein würd'ger Ding ist Tat, selbst ohne Sinn, Als Wort, das ohne Macht, sei's noch so weise" (Dr. Ⅱ, S. 837)[16]

말이 갖는 윤리성의 두번째 한계점은 언어의 인식문제와 관계가 있다. 언어란 결국 현실을 증계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할 점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온전하게 표현될 수 없는 구체적 현실의 숙명적 성격이 되겠다. 때문에 슈니쯜러로서는「너는 반드시 진실하게 말해야 하고 속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당위를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Unsere ganze Moral besteht vielleicht nur darin, aus diesem unpräzisen Material, das uns das Lügen so leicht, so verantwortungslos, so entschuldbar macht, aus der Sprache etwas Besseres zu machen. Mit Worten so wenig zu lügen als möglich ist." (Vorw. S. 26)

IV. 결 론

말이 정확하지 못한 표현수단이라고 보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수가 있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예가 보여주고 있듯이 주로 정신적으로 복잡한 내면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복합성의 표현을 사유와 이해의 타당한 기능을 지녀야 할 언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데에서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다.

Schnitzler의 60세 회갑 때에 보낸 편지(1922. 5. 14)에서 Freud는 슈니쯜러를 마치 자신의「복사인물」인 것처럼 친밀감을 느껴왔다고 실토하고 있다:

„Ihr Determinismus wie Ihre Skepsis—was die Leute Pessimismus heißen—, Ihr Ergriffensein von den Wahrheiten des Unbewußten, von der Triebnatur des Menschen. Ihre Zersetzung der kulturell-konventionellen Sicherheiten, das Haften Ihrer Gedanken an der Polarität von Lieben und Sterben, das alles berührte mich mit einer unheimlichen Vertrautheit."

이와 연관해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논급은 G. Wunberg의 지적이다: Schnitzler가 호흡하였던 청년빈학파의 정신사적 배경을 묘사하면서 Wunberg는 Ernst Machs의 철학이 슈니쯜

15) 말의 구속력에 대한 체험은 청년장교 Konrad von Ursenbeck이 국경에서 경비를 보고 있을 시 한 적군장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된다. (Dr. Ⅱ. S. 763)

16) 이와 관련해서 증시되는 Schnitzler의 언급은 1914년 10월 20일자 전쟁이 발발했을시 Brandes에게 보낸 한 편지의 대목이다: „Aber ziemt es sich denn, in dieser überwältigend grauenhaften Epoche der artige Worte wie Schuld, Strafe, Verantwortung zu gebrauchen? Alles Philosophische und Ethische verlischt in Sturmhauch der Geschichte."

러에게 끼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학파의 전형적 사상의 기반이 대체적으로는 심리학적 기초 위에서 펼쳐지는 언어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17]

내면적 현실의 포착이 심리적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과 그것과 언어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좋은 본보기는 슈니쯜러의 희비극 「Das weite Land」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작품의 중심에 위치한 Aigner박사의 언급이 그 단적인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ollt' es Ihnen noch nicht aufgefallen sein, was für komplizierte Subjekte wir Menschen im Grunde sind? So vieles hat zugleich Raum in uns—! Liebe und Trug...Treue und Treulosigkeit... [...] Wir versuchen wohl Ordnung in uns zu schaffen, so gut es geht, aber diese Ordnung ist doch nur etwas Künstliches...Das Natürliche...ist das Chaos. Ja—mein guter Hofreiter, die Seele... ist ein weites Land, wie ein Dichter es einmal ausdrückte...Es kann übrigens auch ein Hoteldirektor gewesen sein." (Dr. Ⅱ, S. 281)

인간이란 "복잡한 주관"을 지니고 있고 그의 내면세계는 원칙적으로 혼돈상을 방불케 하는 바, 일단 언어개념에 의해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내면의 정돈상이란 다만 인위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이다. Aigner는 내면적 현실의 광활한 천지를 관장하는 사무란 마치 호텔관리자가 정신없이 처리하는 일과와 다름없다는 듯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Schnitzler가 지닌 언어회의에 관한 심리적 근거는 비단 이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Der letzte Brief eines Literaten」에서의 예도 역시 그러하다:

„Der Geschwindigkeit, mit der eine Gedankenreihe von schicksalvoller Bedeutung im Hirn abrollt, vermag auch die gedrängteste Sprache niemals zu folgen." (Erz. Ⅱ, S. 212)

「Traumnovelle」에서는 Abertine의 꿈이야기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In Worten lassen sich diese Dinge eigentlich kaum ausdrücken" (Erz. Ⅱ, S. 478)

말의 불가항력적인 약점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근거를 논함에 있어서 물론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Schnitzler가 우선적으로는 작가라는 사실이고 그의 언어회의는 시적 형상화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표명한 「언어회의」라는 문제성은 진지한 작가정신의 고뇌에서 표출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시각에서 그의 극작품들을 조명해 볼 때 거기서 우리는 번민하는 시대정신의 문학적 반영상을 거듭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왜 Schnitzler의 작품들이 당대의 사람들을 그토록 열광시켰으며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현대적일 수 있나 하는 점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사이비 문사들 부류의 글장이들이 연출하는 말의 횡포에 관한 상징적 고발문학으로 이

17) Gotthard Wunberg: Der frühe Hofmannsthal. Schizophrenie als dichterische Struktur. Stuttgart 1965 (Kohlhammer Verl.) S. 35.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일단 이것이 「글장이극」(Literatenstück)으로서 밀도있게 구성되었나 하는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말로써는 가능한 한 거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윤리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슈니쯜러는 진지하게 몸부림쳤다는 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내 이 작품의 출간을 주저하였던 것이고 더구나 주인공이 당대의 문필가 Altenberg를 모델로 설정하게 된데서 파생한 여러 차원의 도의적 책임과 의무가 그로 하여금 이 작품의 출간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신중성을 가지게끔 강요한 일면은 능히 추정되고도 남는 터이다.

어쨌든 이 작품은 언어를 구사하여 삶의 의미를 새로이 조명하면서 보다 의미있게 살아보려는 인간의 꺼질줄 모르는 내면적 욕구와 호흡을 같이하는 작가들의 또 다른 고뇌를 문제삼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의 형성화를 위해 30여년 동안이나 작가가 진지하게 손질해온 산증거물이란 의미에서 우리는 Schnitzler의 고통에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Literaturverzeichnis)

1. Texte

Arthur Schnitzler: Gesammelte Werke. Frankfurt/M. (Fischer Verlag) 1961~62.

Ⅰ. Die erzählenden Schriften (2 Bd.)

Ⅱ. Die dramatischen Werke (2 Bd.)

Ders.: Das Wort. Tragikomödie in fünf Akten. Frankfurt/M. (Fischer Verlag) 1966 (Aus dem Nachlaß herausgegeben und eingeleitet von Kurt Bergel)

Ders.: Bemerkungen aus dem Nachlaß. In: Die Neue Rundschau 1962 (S. 347-357)

Ders.: Kritisches. Aus dem Nachlaß. In: Die Neue Rundschau 1962 (S. 203-228)

Hugo von Hofmannsthal: Gesammelte Werke in Einzelausgaben. Hrsg. v. Herbert Steiner. Frankfurt/M. (Fischer Verlag) 1947~1959.

2. Briefwechsel

Schnitzler—Brandes, Bern 1956.

Schnitzler—Brahm, Berlin 1953.

Hugo von Hofmannsthal—Arthur Schnitzler, Frankfurt/M. 1964.

Sigmund Freud: Briefe an Arthur Schnitzler. In: Die Neue Rundschau 66(1955) S. 95-106.

3. Sekundärliteratur

Baumann, Gerhart: Arthur Schnitzler. Die Welt von gestern eines Dichters von morgen.

Frankfurt/M. (Athenäum Verlag) 1965.

Bergel, Kurt: Arthur Schnitzlers unveröffentlichte Tragikomödie "Das Wort". In: Studies in Arthur Schnitzler, Centennial commemorative volume, edited by H. Reichert and H. Salinger. Chapel Hill 1963 S. 1-24.

Blume, Bernhard: Das nihilistische Weltbild Arthur Schnitzlers. Stuttgart 1936.

Brinkmann, Richard: Hofmannsthal und die Sprache. In: DvjS 35(1961), S. 69-95.

Eibl, Karl: Deutsche Literatursprache der Moderne. In: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Bd. III Tübingen (M. Niemeyer Verlag) 1973, S. 545-551.

Hutschneider, Joseph: Arthur Schnitzler als Aphoristiker. I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rthur Schnitzler Research-Association. Vol. 4(1965).

Mähl, H.-J.: Die Mystik der Worte. Zum Sprachproblem in der modernen deutschen Dichtung. In: WW 13(1963), S. 289-303.

Pestalozzi, Karl: Sprachskepsis und Sprachmagie im Werke des jungen Hofmannsthal. Zürich 1958.

Prang, Helmut: Der moderne Dichter und das arme Wort. GRM. NF 7(1957), S. 130-145.

Scheible, Hartmut: Arthur Schnitzler (Rowohlts Monographie Rowohlt Taschenbuch Verlag) Hamburg 1976.

Schnitzler, Olga: Hofmannsthal und Arthur Schnitzler. In: Hugo von Hofmannsthal. Der Dichter im Spiegel der Freunde. Hrsg. von Helmut A. Fiechtner. Bern-München (Franke Verlag) 1963.

Wittmann, Lothar: Sprachthematik und dramatische Form im Werke Hofmannsthals. Stuttgart (Kohlhammer Verlag) 1966 (=Studien zur Poetik und Geschichte der Literatur 2).

Wunberg, Gotthard: Der frühe Hofmannsthal. Schizophrenie als dichterische Struktur. Stuttgart (Kohlhammer Verlag) 1965.

《**Zusammenfassung**》

Versuch einer Interpretation der Tragikomödie "Das Wort" von Arthur Schnitzler

Tschang-Un Hur

Schnitzlers Sprachskepsis, die in der Tragikomödie "Das Wort" thematisch behandelt wird, ist eine der typischen literarischen Erscheinungen der modernen Zeit.

In dieser Studie wird zuerst versucht, den Zusammenhang der sprachskeptischen Auffassung und der sprachlichen Übertragungsfunktion des Wirklichen aus seinem philosophischen und kulturkritischen Hintergrund her zu beleuchten und darzustellen.

Da diese Problematik in dem Werk im Sprachverhalten des sogenannten Literaten als Typus gestaltet und dargeboten wird, einem Menschen, der den echten Bezug zur Wirklichkeit verloren zu haben scheint, unterzieht sich die Eigentümlichkeit dieses Typus anhand seiner Sprachverwendung (z.B. von Treuenhof, Gleissner oder Rapp) einer näheren Analyse. Der Scheinexistenz entsprechend, die auf einer ihrem Wesen entfremdeten Sprache beruht, nimmt der Literat das Leben nicht ernst und wird selbst im Leben nicht ernst genommen. Gerade in dieser Haltung des ohnmächtig von der sprachlichen Fragwürdigkeit und Unzulänglichkeit Wissenden könnte das tragische Moment eingebettet sein.

Demgegenüber ist die Sprachauffassung von Hofrat Winkler realistisch. Worauf er in seiner praktischen Sprachhaltung das Gewicht legt, ist vor allem die Funktion der Sprache als Mitteilungsmittel. Er anerkennt und akzeptiert die Notwendigkeit der Sprache im sozialen Bereich. Eine grundlegende Funktion des Wortes im zwischenmenschlichen Bezug stellt sich nun als weisende Macht im Leben dar. Hier wieder vertritt aber Treuenhof die Gegenposition, die ungeachtet der sprachlichen Willkür und Vergewaltigung die Grenze der Ausdrucksmöglichkeit nicht einmal anerkennen will.

Im Grunde besteht das Unaussprechliche der Realität vornehmlich in einer komplizierten inneren Situation der menschlichen Psyche, deren Komplexität die Spreche als ordnende Funktion des denkenden Erfassens nicht gerecht werden kann.

Mit dieser Problematik der Sprache als unpräzisem Ausdrucksmittel ist eben ein psychologischer Aspekt eng verknüpft. Und daraus ergibt sich nämlich der ethische Charakter des sprachlichen Verhaltens, der schließlich mit dem tragischen Moment von Willis Selbst-

mord korrespondiert. Durch diese inhaltliche Disposition wird der moralische Gehalt der realistisch-skeptischen Sprachauffassung von Winkler im Gegensatz zu Treuenhofs Sprachverhalten positiv bewertet und unterstrichen.

Was wir bei dem psychologischen Ansatzpunkt des sprachlichen Verhaltens freilich nicht vergessen dürfen, ist jedoch das Phänomen, daß Schnitzler in erster Linie Dichter ist und daß seine Sprachskepsis im Grunde ein dichterisches Gestaltungsproblem darstellt. So wäre das fragmentarische Schicksal dieses Werkes schließlich auf den modellhaften Versuchscharakter der dichterischen Phantasie von Schnitzler zurückzuführen, abgesehen von seiner ambivalenten Bespiegelung der biographischen Bestandteile.